

정부는 북한에 불법억류된 우리 국민 석방부터 적극 나서라

지난 13일 밤(현지 시간) 북한에 17개월째 억류되다가 미 당국의 교섭에 의해 12일 석방된 미 대학생 오토 워비어(22)가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오자 미국은 분노에 끓고 있다. 북한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면 "오토 워비어가 지난해 3월 재판 후 식중독에 걸린 상황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서 혼수상태에 빠졌다"고 전했으나 뉴욕타임스(NYT)는 "'오토가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'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. 북한은 억류자에게 수면제 서비스를 할 나라가 아니다.

오토의 부모는 "버림받은 잔혹한 정권에 의해 우리와 아들이 얼마나 괴롭고 공포에 떨었는지 온 세상이 알기를 바란다"며 울부짖었다. 워싱턴포스트(WP)는 사설에서 "한 미국인 대학생을 이처럼 만든 북한 측 처사는 세계에서 가장 사악하고 고립된 체제 가운데 하나임을 고려하더라도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.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는 조속히 강화되어야 할 것"이라고 비난했다.

최근 북한은 우리 국민 6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 이들 대부분은 북·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및 인도 지원 활동을 하다 납치됐다.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, 2014년 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김국기 목사, 같은 해 12월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납치되었다. 나머지 3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로서, 2016년 3월 탈북민 선교사 김원호씨, 같은 해 5월 고현철씨,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탈북민 1명 등 6명이 북한에 납치되어 잡혀있다.

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2014년 11월 케네스 배의 석방에 이어 이번 오토의 경우처럼 석방되기도 하지만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. 이렇고도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? 지난 13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,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"개성공단은 다시 재개돼야 한다"고 했다. 그러나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을 석방하는 인권문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.

2017. 6. 15.

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(한변)

상임대표 김 태 훈